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정정심(여, 1938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제보자2: 양고출(여, 1930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- 줄거리: 제보자의 큰아버지가 술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비료로 쓰려고 팽나무에 걸어놓은 듬북(모자반)을 도깨비로 착각하여 밤새 싸움을 하였다는 우스갯소리이다.

[제보자1] 우리 큰아방이 옛날이 술 먹언 저. 그 이디 폭낭 잇인 알로 술 먹엉 영영 오노 렌 허난. 옛날은 그 듬북이 실갱이 헤단 폭낭 우트레 년 걸. 술 먹으난 도체비 낫젠 그 듬북이영 이 막 싸와낫젠.

[조사자] 듬북이영?

[제보자1] 엉. 경 허난 말잔 보난 둑날은 보난 그 듬북 진진헌 거이, 거영 막 싸완.

“이노무새끼.”

하멍 막 싸와낫젠.

[제보자2] 게난 게 눈엔 무시거 사람으로 보엿주기. 사람으로 보이난 경 헷주.

[제보자1] 경 핸 우리 어멍네

“느네 큰아방은 옛날 영영 현 올라오당이 그 듬북 건거 뺀 막 도체비엔 막 싸와낫저.”

경 골아낫주게. 이디 도체비 잘 나. 겨고 우리 큰아방이 경계. 그 듬북 옛날은 터우로 가그네에이 듬북을 막 그. 비료 엇인 때난 그 듬북을 헤사 보리가 가난. 그 헤다그네에 막 지게로 지어다그네에 막. 그. 물립젠히 그 폭낭 우트레 지렝이 돌아멧주게.

경 허난 옛날은 밤이 강 술 먹엉 오단 보난게 거둑헨 잇이난.

“아이고, 요노무새끼.”

허멍 막 쌍단 보난이, 둑날은 보난 듬북 건 걸 몰란. 경 핸 헤낫젠히 허메.

- 핵심어 : 폭낭, 듬북, 도체비, 싸움, 술, 큰아방, 모자반, 도깨비